

# ‘안전전북’ 구현 안전대진단 시동

### 전북도, 오늘 관계자 교육 실시 사전준비 착수 위험시설 관리 등 점검대상 시설 수 이달 말 확정

공공과 민간의 안전사각지대 및 위험시설 등에 대한 2019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에 앞서 전북도가 15일 도청 대강당에서 관계자 교육을 필두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설명회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과 달라진 점검대상 선정·점검 방식 등에 대한 기본계획 설명과 실무자들의 점검시

설 관리를 위한 시스템사용 교육으로 진행된다. 2018년에 비교해 볼 때 크게 달라진 점은 점검대상 선정, 점검 방식, 점검자와 확인자 모두의 실명을 기재하는 점검실명제 정착 등이다. 점검대상은 행안부가 점검분야를 지정해주는 기존 방식이 아닌 시설주관 부처가 위험시설 전수조사 등

을 거쳐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부처가 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최근 사고발생 시설 및 국민 관심분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은 점검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고 정확한 점검대상 시설 수는 1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점검방식은 기존 관리주체의 자체 점검 중심에서 점검대상 전체를 합동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점검실명제 확대와 점검결과 공개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점검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작년까지 점검과 위험요소 신고에만 국민 참여가 가능했으나 올해에는 점검대상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점검과정, 만족도 조사 등 대진단 전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켜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한 전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다할 것”이라며 “무관심이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도, 청년농업인 네트워킹 지원

### 50개 동아리 총 1억원

전북도가 청년농업인들의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해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상호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동아리 활동을 신규 지원한다.



전북도의회는 14일 전주군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2019년 새해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45세미만 청년농업인 10명(8~12명) 내외로 지역별 또는 품목별로 동아리를 구성해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과소화·고령화와 같은 농촌의 지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꾸준히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청년농업인들이 지역간, 계층간 소통이 부족하여 농촌에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청년농업인 상호간 자유롭게 동아리를 구성하고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시책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신규 동아리는 총 50개를 선정할 예정이며, 동아리별 200만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구성원끼리 직접 만나 영농 정보교류, 산배농업인 초청 강연 등 학습활동, 문화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정책관은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영농 초기에 겪는 소외감, 고립감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새해 첫 의정활동 각오 다짐

### 도의회 전주군경묘지 참배

전북도의회는 14일 전주군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2019년 새해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송성환 의장과 송지용 부의장,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 최찬욱 환경복지위원장, 강용구 농산업경제위원장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전주군경묘지에서 환화·분향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기해년 새해 의정활동 각오를 다졌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

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이어 받아 전라북도의회는 올해 잘사는 전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겠다”며 “도민 곁에서 도민의 뜻을 무엇인지 헤아려 이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 도민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시책방향 청취와 교섭단체대표 의원 연설, 5분 자유발언 등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김진성 기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 기부자 명단

**<원주>**  
봉동읍 쌍계마을 200,000

**<원주>**  
행안면 남산마을 260,000  
행안면 아롬마을 100,000  
행안면 안기마을 230,000  
(1월 15일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일 잘하는 개혁 인물 중심 정당으로”

### 김광수 의원, 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14일, 민주평화당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권에 취한 행태는 기득권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엄중한 시기에 당 사무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일 잘하는 개혁적 인물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갑질 기득권 정당과 경쟁해 나가는 민주평화당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김광수 의원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항 갑질, 자유한국당 의원의 침 뱉기 논란 등 갑질과 기득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활동한 사람들, 청년, 여성 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 정치개혁 의지로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이 모이는 정당이 되도록 많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공공의료 발전방향 모색

### 전북도-남원시, 18일 국회의원회관서 세미나 개최 공공의대 필요성 · 의료인력 수급 해결책 등 제시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오는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바람직한 공공의료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은 지난해 4월 당·정 협의로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공공의대의 필요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실제 의료취약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공의대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위한 것으로, 세미나는 주현수 전 서남대 의과대학교수를 좌장으로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의 사례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이 농어촌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과 대안을 주제로 각 사례를 발표한다.

박주영 원장은 “착한 적자”를 안고 적정수준의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입장에서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강영석 과

장은 사례를 통해 지역의 의료격차,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현실과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주 기자

장한 지역 의료격차,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현실과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현수 전 서남대 의과대학교수를 좌장으로 ▲박주영 남원의료원장이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현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이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영명 전국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의 사례 ▲박찬병 서울시립 서북병원장이 농어촌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과 대안을 주제로 각 사례를 발표한다. 박주영 원장은 “착한 적자”를 안고 적정수준의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의료원의 입장에서 공공의료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강영석 과

장한 지역 의료격차,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현실과 운영의 어려움,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의료취약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9-1호

##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또는 해당 공사 현장 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이외의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분묘의 소재지              | 분묘기수 | 분묘번호      |
|----------------------|------|-----------|
| 전북 장수군 계곡면 원촌리 산90-1 | 1기   | 무연고(N0.2) |
| 전북 장수군 계곡면 원촌리 산90-1 | 1기   | 무연고(N0.5) |

2. 개장사유: 국도19호선 장수 계곡 원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3. 개장 후 안치장소: 남골당 안치  
4. 개장 후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2018. 11. 21. ~ 2019.02. 20(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정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가 개장  
- 무연분묘: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7. 신고처  
- 국도19호선 장수 계곡 원촌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현장사무소 (휴대폰010-7400-1177)  
-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63-620-2919)

2019. 1. 15.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